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기업 성과 측면을 중심으로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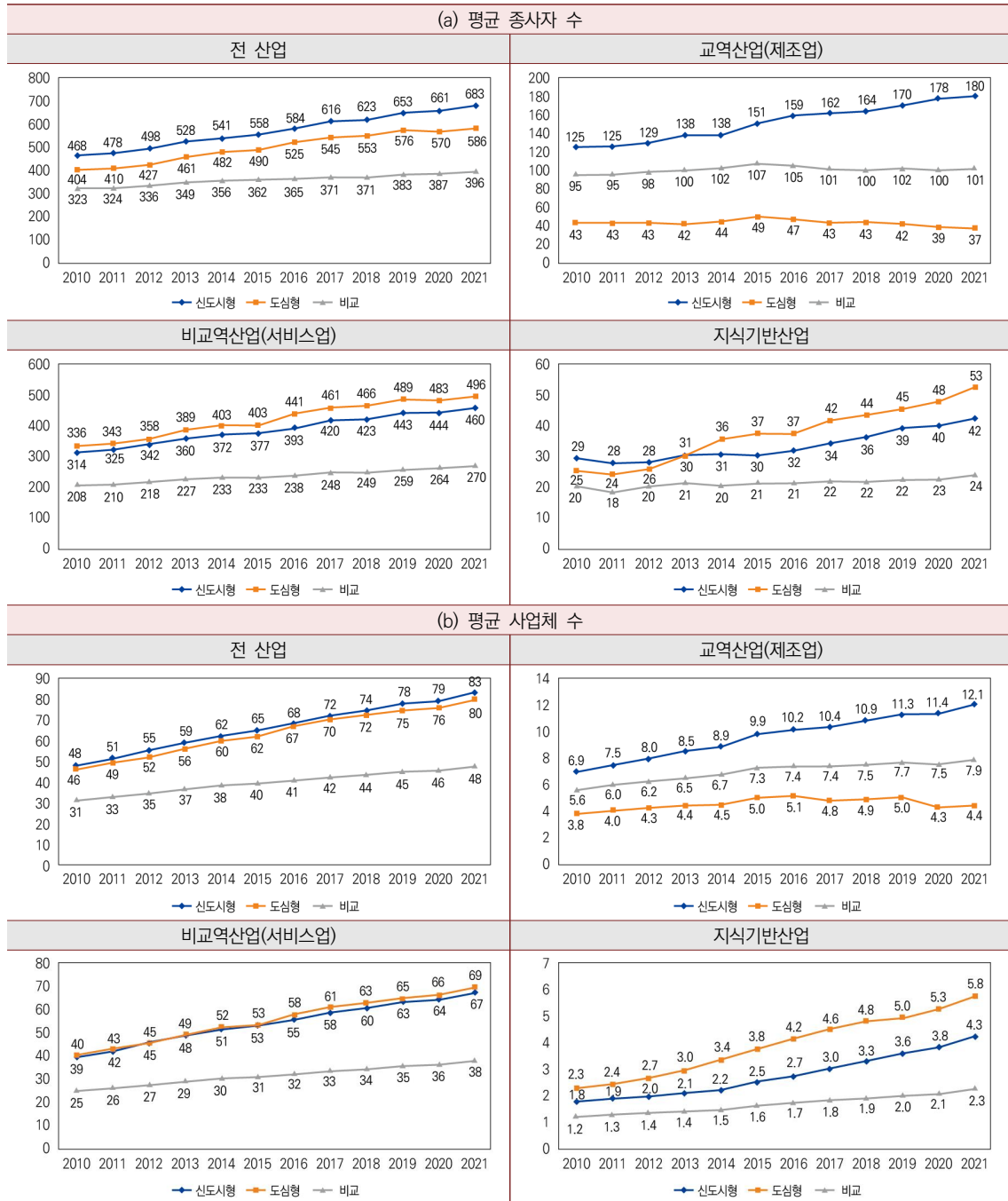
- 입지 유형별 혁신도시의 특성이 혁신도시 산업구조와 기업 단위 성과의 차이로 나타남.
 - 도심형 혁신도시는 모도시(광역시)의 높은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고속권 노동력의 확보가 수월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이 일어나고 있으나, 기업 단위 고용·생산성은 다소 정체
 -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대도시의 좋은 정주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공간 확장의 수월함, 도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가 장점으로, 교역산업·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이 일어나는 동시에 교역산업 기업 단위 고용·생산성의 향상이 관측
 -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넓은 공간과 저렴한 지가가 장점이나 낮은 정주환경 수준이 단점으로, 교역산업 중심의 집적이 뚜렷하며 교역산업 기업 단위 고용·생산성 향상이 관측
- 향후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혁신도시 유형별 특성과 기업의 입지 유인을 고려한 혁신도시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
 - 도심형 혁신도시는 대도시 정주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육성에 집중하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생산시설 집적지와의 연계 발전 필요
 -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교역산업의 집적 촉진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의 질(quality)적 성장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혁신도시를 포함한 대도시 생활권을 메가시티로 통합해 지역 거점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교역산업 중심의 기업 집적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도시 인프라와 주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향후 중소형 지역 거점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후 산업별 기업·근로자의 집적 정도에 있어 혁신도시 입지 유형 간에 상당한 차이가 관측되는 상황으로, 입지 유형별 맞춤형 혁신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 존재

- 산업 부문을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교역산업, 비교역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구분하고, 혁신도시 입지 특성에 따른 산업 부문의 이질적 영향을 분석¹⁾
 - ‘교역산업’은 생산물의 교역이 가능한 제조업으로 생산시설을 위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지식기반산업’은 생산에 무엇보다 고숙련 인력이 중요
 - ‘비교역산업’은 (교역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 아닌) 주로 지역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산업으로 지역 내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며, 이에 지역 인구 및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
-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유형을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부에 조성된 ‘도심형’과 광역시 외부에 조성된 ‘신도시형’으로 분류(<표 1> 참조)²⁾³⁾
 - 도시 내 생산을 위한 가용 공간 및 주변으로의 확장성, 인접 지역의 정주환경에 대한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신도시형과 도심형 혁신도시 간 차이가 존재
 - 신도시형 혁신도시는 도심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이 수월하며 낮은 지가가 장점
 - 도심형 혁신도시는 모도시(광역시)의 정주환경이나 주택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수급에 유리하며 특히 고숙련 노동력의 확보에 장점⁴⁾
- 이러한 유형별 차이 즉, 입지 여건의 차이는 기업의 입지 선정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혁신도시의 산업구조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됨(<그림 1> 참조).
 - (교역산업) 생산시설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경우 교역산업의 집적이 발생하였으나, 공간의 여유가 많지 않은 도심형의 경우 집적이 제한적
 - (지식기반산업) 신도시형과 도심형 혁신도시 모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집적이 발생하는데, 고숙련 노동력의 확보가 수월한 도심형에서 집적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⁵⁾

1) 이는 문운상(2021)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과 유사한 분류로서, 생산물의 교역 가능성과 생산요소 수요에 대한 이질성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
 2) 본고에서는 혁신도시 입지 유형을 도심형(부산, 울산, 대구)과 신도시형으로 구분하고, 신도시형 혁신도시는 대도시 배후형(광주전남, 전북)과 중소도시 배후형(충북, 강원,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하여 분석.
 3) 자료의 가용성과 통근 패턴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경제권 또는 노동시장권)를 시군구 단위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를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으로 정의.
 4) 이주(migration) 선택에 있어 정주환경의 영향은 대학교 졸업 미만 학력의 근로자(non-college workers)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의 근로자(college workers)에게 중요한 것으로 알려짐(Diamond(2016), “The determinant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US workers’ diverging location choices by skill: 1980-2000”, *American Economic Review*, 106(3), pp. 479-524).

〈그림 1〉 혁신도시 유형(신도시형/도심형)-산업별 집적 현황



자료: 서성민·백승민(2024),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기업 성과 측면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주: 1) 지식기반산업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정의되며, 교역산업은 지식기반제조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비교역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2) 신도시형은 신도시형 혁신도시 시군구, 도심형은 도심형 혁신도시 시군구, 비교는 비교도시 시군구.
 3) 그림은 각 유형에 속한 시군구의 평균값의 연도별 수치.
 4) 종사자 수 단위는 백 명, 사업체 수 단위는 백 개.

5) 지식기반산업은 산학연 클러스터의 주요 유치 대상으로, 혁신도시의 유형과 관계없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에 산학연 클러스터가 긍정적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산학연 클러스터가 없는 부산 혁신도시는 제외).

〈그림 2〉 혁신도시 유형(신도시형/도심형)-산업별 기업 성과 분석 결과



자료: 서성민·백승민(2024),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기업 성과 측면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주: 1) 실선은 '혁신도시 × 연도' 계수추정치를 나타내며, 점선들은 각각 계수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2) 종속변수가 로그를 취한 모형이므로 성과변수(노동생산성, 고용) 증감률은 $(\exp(\text{계수추정치}) - 1) \times 100\%$ 로 계산됨.

- (비교역산업) 유형과 관계 없이 타 산업(교역재·지식기반산업)의 집적에 따라 비교역산업의 집적이 발생

■ 혁신도시 유형별(신도시형-도심형) 집적의 차이는 기업 단위 성과의 차이로 나타남.

- 기업의 공간적 집적은 집적경제 효과를 통해 해당 공간 소재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간 도시경제학 영역에서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집적경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된 바 있음.⁶⁾
- 혁신도시 유형에 따라 산업별 기업의 평균적 성과에 차이가 발생(<그림 2> 참조)⁷⁾
 - (교역산업) 교역산업의 집적이 강한 신도시형은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 증가가 관측되었으나, 교역산업의 집적이 약한 도심형은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이 대체로 하락
 - (지식기반산업) 모든 유형의 혁신도시에서 기업의 집적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고용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혁신도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방향의 필요성을 시사
 - (비교역산업) 신도시형은 공공부문이나 교역산업 등 타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도시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고용보다 빠르게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였으나, 도심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심형 혁신도시에서는 서비스업의 확대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서비스업 내 기업의 매출·고용 위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신도시형 혁신도시를 대도시 배후형과 중소도시 배후형으로 세분화해 보면, 유형 간 산업별 기업·근로자의 집적 정도에 차이가 존재

- 도시 내 가용 공간 및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성이 용이한 공통점을 가지는 신도시형 유형에서도,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대도시 배후형)와 중소도시 인접 혁신도시(중소도시 배후형) 간 도시 특성 차이가 존재
 - 신도시형 혁신도시 중 광주시에 인접해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와 전주·완주에

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주요 실증연구 소개는 서성민·백승민(2024) 참조.

7) 사업체 단위 자료인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2010~2021)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로그 종사자 수, 로그 노동생산성(실질매출액/종사자 수)에 대해 아래 회귀식 추정을 통해 각 산업에서 유형별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임.

$$Outcome_{i,t} = Const + \sum_{r=2012}^{2021} (\alpha_r \text{ 혁신도시} \times \text{연도}_{i,r} + \beta_r \text{ 인접지역} \times \text{연도}_{i,r}) + \mu_i + \theta_t + \epsilon_{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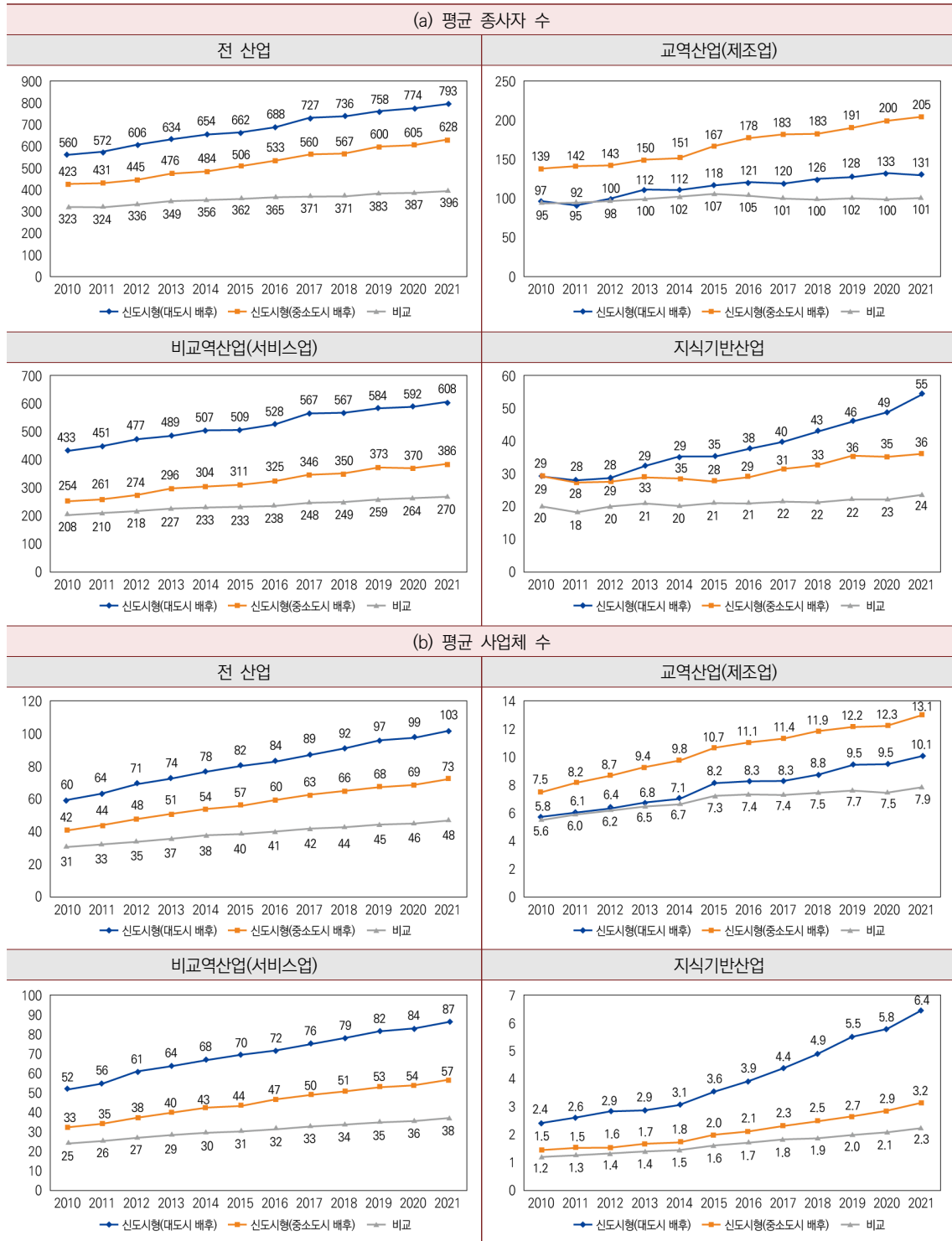
구성된 전북혁신도시를 대도시 배후형으로, 나머지를 중소도시 배후형으로 분류⁸⁾

-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대도시 생활권(통근)에 속하므로 중소도시 배후형에 비해 배후도시의 정주환경·주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고속권 노동력 확보가 수월
- 이러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행 전부터 두 도시 유형 간에는 산업구조의 차이가 존재
- 2011년 고용 기준 대도시 배후형은 비교역산업의 비중(78.9%)이 중소도시 배후형(60.7%)에 비해 높으나 중소도시 배후형은 교역산업의 비중(32.9%)이 대도시 배후형(16.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식기반산업을 보면, 중소도시 배후형이 대도시 배후형에 비해 1인당 고용은 높으나 1인당 사업체 수는 대도시 배후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 대도시 배후형에서 상대적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영세화 경향이 관측⁹⁾
- 이러한 도시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신도시형 혁신도시에서 대도시-중소도시 배후형 간 산업별 집적 정도의 차이가 존재(〈그림 3〉 참조)
 - (지식기반산업)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배후지역(대도시)의 정주환경이 중요한 지식기반산업 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교역산업)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집적이 두드러지며, 대도시 배후형에서 사업체의 집적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배후형의 경우 도시 내 공간이 비교적 지식기반산업 기업에 많이 할애되어, 교역재 기업의 고용성장세가 중소도시 배후형에 비해 낮을 개연성 시사
 - 대도시 배후형의 경우 고용성장세는 중소도시 배후형보다 낮으나 사업체 성장세는 비슷한데, 이는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 기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들 위주로 유입이 발생하였을 개연성 시사
 - (비교역산업) 교역산업,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에 따라 꾸준하게 성장하는 추세로, 대도시 배후형과 중소도시 배후형에서 유사한 기업·근로자 집적의 성장세

8) 2019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광주광역시 인구는 146만 명, 전주·완주는 75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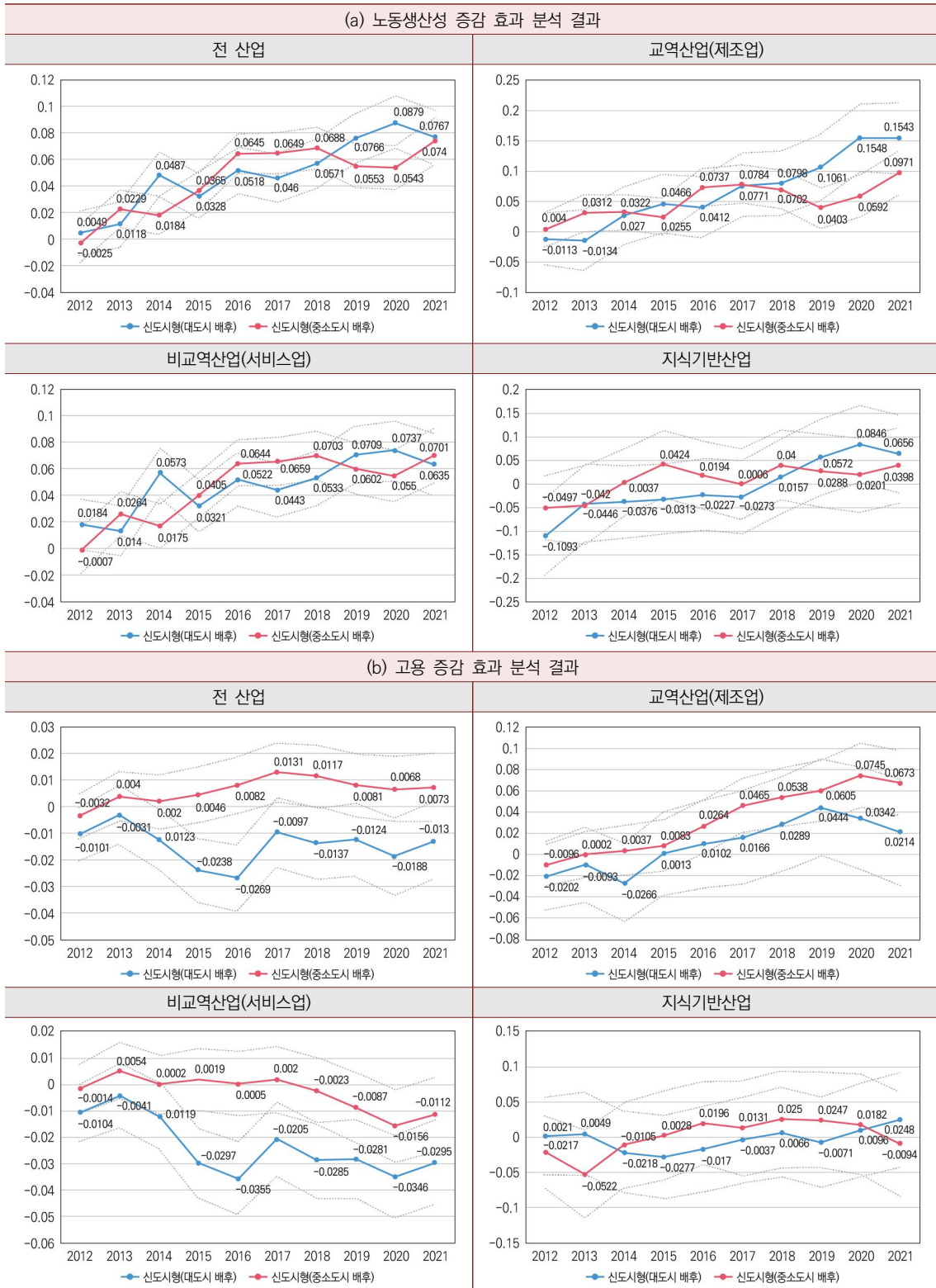
9) 2011년 기준 지식기반산업의 중소도시 배후형의 (인구 1천 명당) 고용은 15.1명, 사업체 수는 0.8명인 반면, 대도시 배후형의 (인구 1천 명당) 고용은 10.3명, 사업체 수는 1.0명.

〈그림 3〉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형(대도시 배후형/중소도시 배후형)-산업별 집적 현황



- 주: 1) 지식기반산업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정의되며, 교역산업은 지식기반제조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비교역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
- 2) 신도시형 혁신도시를 대도시 배후형과 중소도시 배후형으로 세부 유형화 후, 비교도시 시군구와 비교 분석.
- 3) 그림은 각 유형에 속한 시군구의 평균값의 연도별 수치.
- 4) 종사자 수 단위는 백 명, 사업체 수 단위는 백 개.

〈그림 4〉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형(대도시 배후형/중소도시 배후형)-산업별 기업 성과 분석 결과



주: 1) 실선은 '혁신도시 × 연도' 계수추정치를 나타내며, 점선들은 각각 계수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2) 종속변수가 로그를 취한 모형이므로 성과변수(노동생산성, 고용) 증감률은 $(\exp(\text{계수추정치}) - 1) \times 100\%$ 로 계산됨.

▣ 대도시 배후형과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에서 산업별 집적 추세의 차이는 기업 단위 성과 차이로 연결

-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세부 유형(대도시-중소도시 배후형)에 따라 산업별 기업 성과에 차이가 관측(〈그림 4〉 참조)¹⁰⁾
 - (교역산업) 두 유형 모두 고용과 노동생산성은 증가 추세로, 도시 내 가용 공간 및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이 수월한 신도시형 혁신도시의 이점을 바탕으로 성장이 나타남.
 - 특히 대도시 배후형의 경우, 기업 매출액 성장이 고용의 성장에 비해 더 빠르게 나타나 기업의 평균적 노동생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지식기반산업) 대도시 배후형과 중소도시 배후형 모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은 발생하였으나, 아직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 (비교역산업)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두 유형 모두 증가 추세이며, 기업당 고용의 경우 대도시 배후형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관측됨.
 - 대도시 배후형의 경우 기업당 고용 규모는 감소하나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사업체의 수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다양성 증가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혁신도시 건설 이후 급격한 지가 상승이 있었다면 서비스업에서 수요로 하는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도시-중소도시 배후형 간 고용 증감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음.¹¹⁾

▣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 특성과 이에 따른 기업 성과를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기존의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은 주로 이전 공공기관 연관기업 유치 및 정착 지원에 초점, 혁신도시의 입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 존재
 - 기존 혁신도시 산업육성전략의 경우 지역산업연계를 위한 정책방안이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부지의 확장성 여부, 인접 대도시와의 연계성, 공간 비용 등 혁신도시의 입지적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존재

10) 혁신도시 유형(신도시형/도심형)-산업별 기업 성과 분석과 동일한 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11)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2011년 대비 2021년의 지가상승률이 36.2%로 중소도시 배후형(28.2%)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지역별 지가지수, <https://www.reb.or.kr/r-one/portal/main/indexPage.do>).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별 입지 특성과 이에 따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한 혁신도시별 맞춤형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
 - 분석결과에서 혁신도시 유형과 산업 집적의 패턴 및 기업당 성과(고용,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표 1>에 산업별로 다름이 관측되며, 혁신도시 입지 유형 간 뚜렷한 차이가 관측
 - 혁신도시 입지 유형 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별 맞춤형 발전 방향 제시는 기존의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

<표 1> 분석 결과 요약 및 혁신도시 유형별 시사점

산업부문	성과변수	유형	결과	시사점
교역산업	산업 집적도	도심형	기업·근로자 집적 약화	부지/도시의 확장에 수월하고 낮은 지가가 장점인 신도시형은 교역산업 발전에 유리
		신도시-대도시배후형	기업·근로자 집적 증가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기업·근로자 집적 증가	
	기업 생산성	도심형	대체로 하락	
		신도시-대도시배후형	대체로 증가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대체로 증가	
	기업 고용	도심형	2018년부터 지속적 감소	
		신도시-대도시배후형	대체로 증가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대체로 증가	
지식기반산업	산업 집적도	도심형	기업·근로자 집적 높은 증가	대도시 정주환경 접근에 장점이 있는 도심형이나 대도시 배후형은 고속권 근로자가 중요한 지식기반산업 발전에 유리
		신도시-대도시배후형	기업·근로자 집적 높은 증가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기업·근로자 집적 완만히 증가	
	기업 생산성	도심형	변화 미미	
		신도시-대도시배후형	변화 미미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변화 미미	
	기업 고용	도심형	변화 미미	
		신도시-대도시배후형	변화 미미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변화 미미	
비교역산업	산업 집적도	도심형	기업·근로자 집적 완만히 증가	도심형의 경우 사업체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매출 감소·고용축소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신도시-대도시배후형	기업·근로자 집적 완만히 증가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기업·근로자 집적 완만히 증가	
	기업 생산성	도심형	지속적으로 감소	
		신도시-대도시배후형	대체로 증가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대체로 증가	
	기업 고용	도심형	2019년 이후 감소	
		신도시-대도시배후형	지속적으로 감소	
		신도시-중소도시배후형	정체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표 2〉 참조)

- (도심형) 광역시 내에 조성되어 지가가 높은 도심형 혁신도시는 대도시의 정주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간적 여유가 있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
 - 도심형 혁신도시는 생산시설을 위한 넓은 공간이 요구되는 교역산업의 집적 및 기업 성과 향상 측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 대도시의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숙련 노동력이 기업 입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
 - 한편, 지식기반산업이 꾸준히 집적되고 있으나 아직 기업 단위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업 유치와 더불어 향후 혁신도시 내 소재한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등 기업의 질(quality)적 측면 제고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필요
 - 또한 교역산업 유치에 단점인 협소한 부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부 산업단지·유희부지 등과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등 연계를 강화할 필요
- (대도시 배후형) 대도시 정주환경에 접근이 쉽고 부지의 확장성이 높으며 도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특성을 바탕으로, 대도시 생활권(메가시티)과 연계를 통한 지역 거점으로서의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
 -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대도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로 인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 교역산업의 육성도 가능한 장점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교역산업의 집적과 기업 성과 향상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의 집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표 2〉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 특징 및 맞춤형 발전 방향

유형	도심형	신도시형	
		대도시 배후형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전남, 전북	충북, 강원, 경북, 경남, 제주
입지	대도시(광역시) 내에 위치	대도시를 배후도시로 입지	중소도시를 배후도시로 입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도시(광역시) 정주환경 및 주택에 대한 접근성 • 상대적으로 부지가 협소, 도시 확장성에 제약 • 비교적 높은 공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도시(대도시) 정주환경 및 주택에 대한 접근성 • 상대적으로 부지의 확장성·도시의 확장에 용이 • 도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정주환경 및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상대적으로 부지의 확장성·도시의 확장에 용이 • 도심형·대도시배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비용
발전 방향	광역시 내 타 지역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연계 발전	대도시 생활권(메가시티) 연계 발전을 통한 지역 거점화	주변 중소도시와 연계 발전을 통한 중소 지역 거점화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지속적인 교역산업의 집적·육성과 함께 대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 개선을 통해 현재 성장이 정체된 지식기반산업 기업 성과 개선에 집중할 필요
- 더 나아가 대도시 통근이 가능한 대도시 생활권에 포함되기에, 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를 포함한 대도시 생활권을 메가시티로 통합해 지역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 집중적 투자는 효율적인 거점 형성 방안으로서, 도시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음.¹²⁾
- 이러한 측면에서,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대도시 생활권(메가시티) 차원의 지역 거점 조성에 있어 혁신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음.
- (중소도시 배후형) 넓은 공간과 낮은 지가가 장점인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소형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
 - 넓은 공간, 저렴한 지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생산시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교역산업에 매력적인 조건
 - 교역산업의 집적과 기업 성과 향상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그러나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정주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비교우위를 갖는 일부 지식기반산업이나 교역산업의 유치·육성에 집중할 필요
 - 예를 들어, 생산시설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육성에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중소형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는 방향을 모색
 - 병원·문화시설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내 정주환경·사회서비스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서성민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 부연구위원 | econ21seo@kiet.re.kr | 044-287-3077

백승민 지역산업정책실 | 부연구위원 | sbaek@kiet.re.kr | 044-287-3843

12) 한국은행(2024),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BOK 이슈노트 제2024-15호.